

2023년도 사우회 단합대회 열려



장명호 회장

사우회 창립 33주년 기념 단합대회가 5월 31일 MBC문화동산에서 열렸다. 경희궁 앞 공터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하는 1호 버스를 시작으로 네 대의 버스에 분승한 151명의 사우회원과 박미나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11명의 MBC 지원 인력들은 11시 쯤 문화동산에 도착했다. 이어 연수원 앞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고창근(ANN)회원의 사회로 간략한 기념식을 가졌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랜만에 이곳에 다시 오니 지난날 선후배가 머리를 맞대고 MBC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던 연수기간이 생각난다.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이 만났으니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우리의 고향 MBC가 다시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선배들께서 기운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미나 경영본부장은 “안형준 사장께서 당연히 참석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어제 예기치 않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편치않은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제가 대표로 왔다. 선배님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겠다”고 인사했다. 기념으로 단체사진을 찍은 뒤 부문별로 자리를 잡은 회원들은 김수량 고문과 정영희(ANN) 회원의 건배사를 시작으로 회식과 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위해 MBC에



김수량 고문



사회 고창근



정영희(ANN)



박미나 본부장

서는 포천 이동갈비와 주류 및 음료수를 넉넉하게 준비해 회원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의료진을 배치해 회원들의 혈압, 혈당 등을 체크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사무처는 행사에 참가한 회원들에게 고급 타월을 선물했다.

발전기금을 보내주신 분들 (3월 15일 이후)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mbcsau.com>)에 있습니다.

- ▶ 이승엽(관리) 100만원
- ▶ 이길섭(편제) 30만원(2회)
- ▶ 최우철(보도)박효언(ANN) 30만원
- ▶ 한영희(업무) 30만원
- ▶ 정병준(관리) 20만원
- ▶ 오창엽(관리) 20만원(3회)
- ▶ 이대교(관리) 20만원(2회)
- ▶ 김민호(보도) 10만원
- ▶ 전진권(편제) 10만원
- ▶ 김종윤(기술) 10만원
- ▶ 황희만(보도) 10만원
- ▶ 유근혁(기술) 10만원
- ▶ 이명기(편제) 10만원
- ▶ 이완수(대구) 10만원(4회)
- ▶ 정계춘(편제) 9만원
- ▶ 이석희(기술) 5만원



이승엽



최우철



박효언



한영희



정병준



김민호



전진권



김종윤



황희만



이명기



이석희



오창엽



유근혁



이길섭



이대교



정계춘

회/원/동/정

▶유희근(보도) 대학 동창 모임에서 작품 “壽山福海”전달식을 가졌다. “산 처럼 오래 살고 바다 처럼 복을 많이 받으라”는 내용이다.



▶이대호(편제) 5월부터 광명시 광명문화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한다. 공개모집을 거쳐 임용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방기천(기술) 제41회 정보기술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방 회장은 현재 남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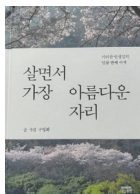
▶강복주(대전) 제31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행초서 및 우수상, 대상 후보작을 심사했다.



▶류종현(보도) 5월 15일 건설회관 6층 강당에서 저서 『초상권의 진화』(공동 저자 이호흥)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구영희(보도) 5월 초,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글과 사진으로 담은 일곱 번째 수필집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출간했다.



사우회 가입을 환영합니다



박태경(보도)
1987년 보도국 입사. 미디어전략본부장, iMBC 사장 등 역임, 현 부사장.



박상열(편제)
1985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디자인센터 국장 등 역임. 2022년 퇴사.



박장호(보도)
1993년 보도국 입사. 기획조정본부장 등 역임, 현 보도본부장



손인식(편제)
1985년 영상미술국 입사.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제작. 2019년 퇴사.



정보영(편제)
1987년 영상미술국 입사. 영상디자인센터 국장 등 역임. 2023년 퇴사.



이종태(관리)
1985년 총무국 입사. 경영지원국, 재무운영국, 감사국 등 근무. 2022년 퇴사.



이선태(편제)
1991년 교양제작국 입사. 편성국장 등 역임. 2023년 퇴사. 현 iMBC 사장.



이재원(관리)
1985년 총무국 입사. TV제작국, 예산관리부, 감사국 등 근무. 2018년 퇴사

동/호/회/소/식

文京會(회장 우윤근)
문화방송, 경향신문 업무부문 직원들 모임으로 1986년에 발족한

문경회는 회원들의 고령화에 따라 더 이상 모임이 어려워져 5월 10일 해산하기로 결의했다.

사우회 회장단, 본사 새 임원진과 상견모임

4월 19일 사우회 회장단은 MBC 임원들과 시내 한 식당에서 상견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사우회 측에서 장명호 회장을 비롯해 김상옥, 양영철, 정연호, 최 천, 조승필, 한기현 부회장들과 류근종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MBC 측에서는 안형준 사장과 박태경 부사장, 민병

우 감사, 박장호 보도본부장, 박건식 기획조정본부장, 윤미현 콘텐츠전략본부장, 이주환 드라마본부장, 박미나 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MBC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함께 사우회의 발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사우회 봄철 낚시대회



사우회 주최 낚시대회가 4월 21일(금) 강화군 화도면 ‘선두포’ 수로에서 3년 만에 열렸다.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불리한 날씨에도 14명

의 동호회원들이 참가해 약 6시간의 조어釣魚를 한 결과 강정수(관리) 회원이 33cm의 붕어를 낚아 우승을 차지했다. 준우승은 김기화

(관리), 3등은 김휴선(보도), 행운상은 권오용(편제)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장명호 사우회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준비된 상품을 전달했

다. 사무처는 참가자 전원에게 오찬을 제공하고 타월과 기념품을 증정했다

회비와 발전기금을 보낼 계좌번호

연회비는 사우회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사우회 운영과 경조비로 사용됩니다.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들께서는 사우회가 드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생깁니다. 발전기금은 사우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사우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 납부와 발전기금에 관한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 또는 사무처(722-741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MBC사우회

경조사항

구순: 이종철(관리) 34. 6. 4

팔순: 유근혁(기술) 44. 5. 22 김주영(대전) 44. 5. 23 정상자(편제) 44. 6. 19
황귀철(업무) 44. 6. 23 이대우(보도) 44. 6. 30 정길용(보도) 44. 7. 2
김형국(기술) 44. 7. 2 최정숙(편제) 44.7.16

고희: 박효언(ANN) 54. 5. 21 김호석(관리) 54. 6. 7 송기남(관리) 54. 6. 12
정태모(관리) 54. 6. 16 이기한(기술) 54. 6. 28 박석태(보도) 54. 7. 6
문기영(관리) 54. 7. 7 조영배(편제) 54. 7. 8 유재식(관리) 54. 7. 9
경정수(관리) 54. 7. 12

회갑: 김학정(기술) 63. 6. 10

결혼: 임무혁(관리) 아들 4/2 이길섭(편제) 딸 4/8
권수훈(관리) 아들 4/23 윤경진(편제) 아들 4/29
정호준(기술) 아들 4/30 박진석(기술) 아들 5/6
최영달(편제) 딸 5/6 유재식(관리) 딸 5/13
장덕수(편제) 아들 5/13 천복용(기술) 아들 5/13
송주한(보도) 딸 5/27 임태성(보도) 아들 6/10
윤광중(관리) 아들 6/10 정남영(관리) 딸 6/18

부음: 염영수(편제) 장모상 3/5 이인재(편제) 모친상 3/7
고영석(관리) 모친상 3/30 이명숙(편제) 시모상 4/5
최우철(보도) 모친상 박효언(ANN) 시모상 4/13
김흥기(편제) 장모상 4/14 윤재희(관리) 장모상 5/10

연회비

평생회비: 박태경, 이선태, 이종태, 정보영

2023년: 고영석, 고창근, 고춘호, 김광안, 김병문, 김종민, 김종오, 박상열,
박장호, 백명순, 손인식, 송주한, 이종화, 이재원, 이영호, 임태성,
정명모

2024년: 이건설

2025년: 이명기

2026년: 임부영

2028년: 정계춘

주소변경/신규

편제: 박상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26 (흰돌마을3단지)
손인식 서울 마포구 창전로 45 (서강한화오벨리스크)
이대호 경기 광명시 안현로 15 (하안1단지고층주공아파트)
이선태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38 (목동신시가지아파트1단지)
정보영 강원 인제군 인제읍 싸리목길 (하추리)

보도: 박장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
박태경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00 (DMC 래미안 e편한세상)
최세훈 경기 부천시 중동로 108 (팰리스카운티)

기술: 곽노우 경북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명리)

관리: 이종태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이재원 서울 은평구 진관4로 48-50 (은평뉴타운상림마을)

춘천: 강 건 강원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13 (현대2차아파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朱玉燕(편제)

3월 13일 별세. 향년 85세. 1961년 보도국 입사. 라디오
제작부 근무.



安永淳(관리)

3월 23일 별세. 향년 88세. 1969년 총무국 입사. 차량부
근무. 1974년 퇴사.



申相容(편제)

4월 6일 별세. 향년 66세. 1983년 야구단 입사. 영상미술
센터 근무. 2009년 퇴사.



金 勇(전주)

5월 3일 별세. 향년 81세. 1969년 전주MBC 아나운서 입
사. 2000년 정년퇴직.

사무처 소식



- 그동안 사우회 회계업무와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노영혜 부장이 4월 말 퇴직했습니다. 이후 회계업무는 최근 사우회에 입회한 이종태(관
리)회원이 맡아 주기로 했습니다. 재직 중 회계, 인사, 감사 등의 분야에서 쌓은 이종태 회원의 경험과 경륜이 앞으로의 사무처 업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문화방송은 사옥 견학 안내를 담당할 “미디어 해설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우회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사우회는 김태홍(기술, 2019년 정년퇴직. 백석대 교수)회원을 추천하여 5월부터 일주일에 1~2회 본사 견학 안내 및 미디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2023년, MBC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MBC 안형준 사장

• 반갑습니다.

언제나 MBC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선배님들께서 땀 흘려 이뤄놓으신 소중한 자산 MBC를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유지하겠습니다.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 드라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현재 MBC 예능은 비교적 제 몫을 다하고 있고, 교양 쪽도 기존의 프로그램에 더해 최근에는 ‘피지컬100’, ‘나는 신이다’ 등 글로벌OTT를 통한 새로운 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도 부문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모바일 쪽에서 MBC 뉴스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를 달성한 기록도 있구요. 다만 ‘드라마왕국 MBC’의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커서 드라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자금력을 배경으로 한 종편, PP와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등이 드라마 제작비를 크게 올려놔기 때문에 재정이 빈약한 지상파 입장에서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본부와 함께 미디어전략본부와 기획조정본부에서도 드라마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큰 틀에서 기존 조직의 변화, 외부 제작사와의 협업 등 효율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MBC는 옛날 드라마에 대한 IP(Intellectual property 知的財産)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예컨대 내년 초에 방송될 ‘수사반장 1963리부트(reboot)’는 배우 이재훈이 최불암 반장 역할을 맡아 과거 ‘수사반장’을 새로운 형태로 제작, 방송하는 것인데요, 현재까지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리부트는 아니지만 7월에 방송될 ‘연인’이라는 시대극을 비롯해 ‘정년이’ ‘밤에 피는 꽃’이라는 드라마도 준비하고 있는데 꼭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우리가 갖고 있는 IP 활용 외에도 외부 IP 소유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창출을 위해 미디어기획국 내에 IP전략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팩트체크를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 때와 최근 동명이인 정치인을 착각해서 보도한 사례는 팩트로 승부를 걸어야 할 저희들의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선임기자 7~8명으로 구성된 ‘팩트체크팀’을 논설위원실에 설치해서 선임기자들의 명예를 걸고 팩트체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D수첩’을 만드는 시사교양제작팀에는 일찍부터 팩트체크팀이 작동하고 있구요) 앞으로는 뉴스의 생명이라는 ‘공정, 신속, 정확’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MBC 뉴스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천 회를 맞아 특집방송을 했던 ‘100분 토론’은 현재 지상파에 남아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의를 잘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 시대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시대가 열리고, 글로벌OTT가 각광을 받고, 지상파TV보다 유튜브를 더 즐겨보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트렌드의 변화에 적시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콘텐츠 제작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최근 시작한지 석 달 만에 백만뷰를 달성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 유튜브에 올린 것인데 가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힘입어 현재 라디오 제작 쪽에서는 해외 팬들을 겨냥한 아이돌 중심의 영상 라디오 프로그램 ‘아이돌 라디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콘텐츠 제작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는 절대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최근 시작한지 석 달 만에 백만뷰를 달성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그대로 카메라에 담아 유튜브에 올린 것인데 가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반응에 힘입어 현재 라디오 제작 쪽에서는 해외 팬들을 겨냥한 아이돌 중심의 영상 라디오 프로그램 ‘아이돌 라디오’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지역MBC와 제작공동체를 시도합니다

현재도 지역사 끼리는 공동제작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MBC플러스와 지역MBC 중 비교적 유보금에 여유가 있는 지역사가 반반씩 투자해서 예능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고 IP도 공유하는 시도를 해보려 합니다. 예능 전문 김구산PD가 이 새로운 시도를 맡고 있는데 성공하면 지역에 서도 예능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DNA가 형성, 축적되어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사만의 콘텐츠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 MBC 그룹 펀드를 구상 중입니다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제작비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방송사의 소중한 제작 인력이 애써 만든 귀한 콘텐츠와 IP가 몽땅 글로벌OTT로 넘어가는 일이 계속되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MBC 그룹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사와 자회사

그리고 지역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투자를 해서 정말 가까운 콘텐츠가 있다면 그 제작비를 펀드에서 충당함으로써 IP를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본부에서 각사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시사교양국에서는 새로운 발상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순한 맛’ ‘매운 맛’ 버전입니다. 즉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규제가 심한 지상파에서 방송할 ‘순한 맛’ 버전의 다큐와 OTT에서 방송할 ‘매운 맛’ 버전의 다큐를 동시에 만드는 겁니다. 제작자는 좀 고생하겠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알 권리’를 더 충족시켜주고 리얼리티를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공대생들이 휴학하고 창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실리콘 밸리에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세계 IT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곳에 야구 게임을 빚댄 격언이 있습니다. “삼진을 당하는 게 두려워서 풀 스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홈런타를 칠 수 없다”입니다. 저는 MBC 직원들이 삼진을 당하더라도 있는 힘껏 풀 스윙을 해서 담장을 넘기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후배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저는 우리 MBC에서 밝은 희망을 봅니다.

• 선배님들께

IP 경쟁을 비롯해서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더욱 ‘콘텐츠 왕국 MBC’를 떠올리게 됩니다. 최근 할리우드와 일본에서는 과거의 인기 콘텐츠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배님들이 힘들게 만들어주신 콘텐츠 자산들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새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MBC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발전을 위한 쓴 소리도 아낌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MBC와 사우회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정리 편집장)



김승월 칼럼

염색



김승월
(편제, 이사)

대통령만큼 좋은 핑곤했거리가 또 있을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대통령 때문이야. 사회가 이렇게 갈라진 것도 대통령 탓이고 북한이 저렇게 계속 도발하는 것도 다 대통령 탓이라구”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온갖 문제가 생기면 으레 ‘대통령 탓’부터 하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 나라다 보니 그런 말 들어 싸다.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내가 머리 염색하게 된 건 바로 대통령 때문이야.”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유력 후보들은 어김없이 까만 머리를 하고 나온다. 70년대 신문에서 보았던 김영삼 대통령의 인터뷰 기사 사진이 생각난다. 40대의 그는 청바지 입은 ‘백발의 동안’이었다. 젊고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그도 검정 머리를 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TV가 얼굴을 비춰주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너나없이 머리를 염색한다. 대통령이 염색을 하니 국민들이 따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40대 중반에 MBC 구내이발소에서 머리 염색을 시작했다. 이발사 아저씨와는 몇 년 동안 같은 통근버스를 탔던 사이다. 나는 창동서타고 그는 수유리에서 탔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물었다. “결재를 받는 사람이요? 결재를 하는 사람이요?” 물론 ‘결재를 받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결재를 하는 사람이면 괜찮지만 결재를 받는 사람이면 머리를 염색해야지. 머리가 허연 사람이 결재서류를 내밀면 높은 사람이 좋아하겠어?” 이발사 아저씨의 뼈 있는 농담에 내 머리를 맡겼다. 그날 이

후 달마다 염색했다.

핑계는 또 있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다. 한번은 어머니가 아들의 흰머리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내 머리를 쓸어내리셨다. “너도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났구나.” 몇 해 전, 40줄에 들어선 딸 아이가 새치를 뽑아달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때 든 내 기분을 어머니는 느끼셨을 거다. 어머니 앞에서선 언제나 ‘젊은 아들’이어야만 될 것 같았다.

염색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젊고 활기차 보인다. 하지만 염색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다. 두피에 자극이 심했다. 눈에도 나쁘다고 하니 시력이 좋지 않은 나로서는 겁이 났다. 염색약 냄새도 싫었다. 염색을 안 하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간 적이 있었다. 가리지 않고 말하는 친구가 반색했다. “야, 너도 이제 딱 늙었구나.” 웃으면서 건넨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열일 제쳐놓고 이발소로 갔다.

염색을 그리 좋아하지 않다 보니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잦았다. 그때마다 흰 머리카락이 밀고 나와 짧은 옆머리가 얼룩져 보였다. 그나마 긴 윗머리는 언뜻 보면 검게 느껴졌다. 정면에서 거울로 보면 봐줄 만했다. 하지만 정면에서 볼 수 없는 후두부에 월형 탈모가 시작되어 신경 쓰였다. 별일 없이 살 때는 무심히 지나쳤다.

지난해 가톨릭 언론인 세계 대회인 ‘2022시그니스세계총회’ 때였다. 염 추기경도 뵈었고 바티칸 홍보부 장관께도 인사드렸다. 90도로 각듯이 절을 했다. 협력기관과 MOU 맺을 때도 진지하게 고개 숙여 서명했다. 뒷날 사진사가 보내준 기념사진들을 보고 얼굴이 화끈 거렸다. 아! 비정한 카메라여. 고개 숙인 장면마다 윗머리의 탈색된 백발과 번들거리는 탈모 부위가 그대로 드러났다. ‘마이크는 약점을 감춰주고 카메라는 약점을 보여준다’는 말 그대로다. 사진사에게 애처롭게 꾸짖었다. “왜 그러셨어요. 알아서 각도를 잘 잡아주시지.”

나이 들수록 염색을 계속해야 하

나 고민이 더해졌다. 한때는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릴까도 생각했다. 신부님들도 더러는 스님처럼 머리를 민다. 늘 머리를 밀고 사는 요셉 수도원의 이수철 신부에게 물었다. “저도 머리를 밀면 어떨까요?” 이 신부님은 웃으며 부추겼다. “한번 밀어보세요. 시원합니다. 허허허.” 머리를 밀지도 못하고 갈등만 하던 내가 염색을 멈췄다. 새로 이사 온 미용사 때문이다. 지난 겨울이다. 머리 염색을 부탁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라면 염색하지 않겠어요, 머리카락 색이 괜찮아요. 대신 짧게 잘라 드릴게요. 염색은 나중에 결정하세요” 자신의 수입은 따지지 않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 같았다. 전문가의 순수한 제안으로 여겨져 받아들였다.

백발의 남편을 본 아내는 심란해했다. 대학 강의 마칠 때까지만이라도 염색하는 게 좋겠다며 내 눈치를 살폈다. 인하대학교에서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멀리할까 봐 나도 마음에 걸렸다. 여동생도 정색하고 말했다. 오빠, 그러면 나이 들어 보여. “조카 말은 섬뜩했다. “늙어서 머리를 짧게 자르면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 모습” 같단다. ‘아픈 사람같이 보인다’고도 했다.

2월 말에, 미용실에 갔다.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짧게 보이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염색하는 게 어때냐’고 재차 물었다. 미용사는 여전히 염색을 말했다. “대신 옆머리는 바짝 자르고 윗머리에는 왁스를 바르세요, 머리가 누워있으면 힘이 없어 보여요. 머리를 세우세요” 옆머리는 짧게 하고 윗머리는 중심부가 솟아 보이게 머리카락을 세워주었다. 축구선수 베컴이 한 때 했던 소프트 모히칸(soft mohawk)스타일의 아류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그냥 두면 얇전히 드러누워 금방 납작하게 달라붙는다. 가운데 머리를 세우니 조금은 힘이 있어 보였다. 슈퍼에 가서 만원을 주고 왁스를 샀다. 유튜브를 뒤져 왁스 바르는 법도 배웠다.

“젊어 보여요. 잘 잘랐네요” 인사

성이 좋은 분들은 듣기 좋게 말했다. 그냥 건네는 말인 줄 뻔히 알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다. 거울 앞에서 낮선 내 모습을 보고 또 본다. 남자의 변신도 무죄 아닐까? 헤어스타일은 머리카락 색깔보다 머리 형태가 중요한 건가.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이 될까?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어쨌든 이제는 아침마다 왁스를 발라 머리를 고쳐 세운다. 그러다 움츠러들기도 한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흰머리가 있는지 살펴본다. 매번 검은 머리 천지다. 연세 든 분들은 대체로 염색을 했거나 모자를 썼다. 그때마다 ‘아웃사이더’가 된 기분이다.

최백호, 배철수처럼 백발을 고수하는 연예인들이 있다. 연예인은 대중들을 즐겁게 해야 하니까 젊고 멋지게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었다. 대중들을 위해서 머리를 염색해야 한다고 강변하곤 했는데 요즘은 아니다. 그나마 멋진 백발의 그들이 버티고 있어 고맙기까지 하다.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재판할 때 흰 머리 가발은 쓴다. 흰 머리 가발을 써서 공정하고 지혜롭게 재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성경 말씀이 용기를 준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 다” (잠언16:31) 위로의 말씀도 있다. “젊은이의 자라는 힘이고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잠언 20:29) 하지만 무함마드 알리가 남긴 말에 뜨끔했다. “백발 밑에 지혜가 없다면 나는 백발을 존경하지 않겠다.”

머리를 염색하거나 왁스 바르는 것이 지혜라면 세월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 아닐까. 내 나이가 좋다면 늙어가는 모습을 편하게 여기는 이가 적지 않다. 노인의 짧은 머리는 여유가 없고 노인답지 않다는 말도 있다. 백발이나 주름은 내 세월의 흔적이니, 내 삶의 한 부분이다. 백발의 긴 머리를 휘날릴 날이 내게도 올까.

나 얼마나 더 살아야 당당하게 세월을 끌어안을까.

‘비운의 복서 김득구’ 이야기



윤 병 권(보도)

내가 라스베이거스에서 <김득구, 레이 붐 붐 맨시니전>을 중계방송한 지도 벌써 40년이 훌쩍 지났다. 1982년 11월, 이철원 캐스터, 한보영 해설자, 장 경 취재기자, 임웅길 엔지니어 그리고 제작PD인 나 이렇게 구성된 방송팀은 경기 나흘 전에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김득구와 김현치 매니저는 이미 캠프를 설치하고 맹훈련에 돌입했다.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호텔’은 최고급 호텔로 눈부신 내온사인과 현란한 규모, 넓은 홀에 설치된 갠블링 머신 등이 눈을 끌었다. 라스베이거스로 떠나기 전에 “그곳 날씨가 어때냐”고 장 경 선배에게 물었더니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남부에 있는 사막 지역이라 겨울에도 더운 날씨니까 간단히 입고 가면 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막상 라스베이거스 공항에 내리니 산등성과 넓은 벌판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게 아닌가. 게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식사 때마다 호텔에서 인근 벌판에 홀로 있던 한국 식당으로 오가며 얇은 옷으로 엄청 추위에 떨어야 했던 씁쓸한 기억이 선명하다.

도착 후 먼저 호스트 방송사인 CBS와 만나 그들의 방송 스케줄과 제작 계획 및 OB 밴의 위치 등을 확인하고 IS(인터내셔널 싸운드)와 클린 비디오를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현지 방송 장비 프로덕션 관계자를 만나 우리의 방송계획을 설명하고 제작 장비 구성, CBS와 연결, 우리의 오디오, 비디오 운용에 대해 논의했다. 나와 임웅길 엔지니어, LA 프로덕션 장비회사 스탠프 그리고 CBS 제작팀은 이후에도 몇 차례의 회의를 더 가졌다. 김득구 선수도 결전을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거듭하며 챔피언 쟁취를 다짐하고 있었다. 체중 계량도 무사히 통과했다. 붐붐 맨시니가 백인 복서로 미국 내에서 엄청난 인

기를 끌고 있어 미디어의 관심도 대단했다. 체중 계량 직후 두 선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현장에 우리말 통역이 없어 부득불 내가 김득구의 다짐을 통역했다.

11월 13일 토요일 오전(한국시간 14일 일요일 새벽) 현장에 일찍 나가 방송 장비를 점검하고 스태프들에게 제작 계획을 다시 설명하고 확인했다. 호텔 주차장에 플랫폼 형태로 만든 철근 구조의 특설 링은 넓고 견고해 보였다. 이전에 무하마드 알리, 조 프레이저 등이 경기했던 곳이다. CBS OB 밴과 우리 중계차는 특설 링 바로 뒤편에 나란히 주차하고 있었다. 한국 관중들은 태극기와 더불어 몇 군데 함께 모여 응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챔피언 붐붐 맨시니와 도전자 김득구가 대결하는 WBA 세계미들급 타이틀전은 오후 2시가 좀 넘어서 시작했다. 종이 울리자 김득구는 빠른 몸짓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초반부터 승기를 잡는 듯했다. 나는 현지 스태프들을 지휘하느라 차분하게 경기를 볼 여유가 없었다. 중계차 안에서 VTR 녹화도 체크해야 하고 중계석 캐스터 오디오 상태도 들어야 하고 경기 진행 상황도 파악해야 했다. 임웅길 엔지니어는 중계석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중계차 내부에서 CBS가 주는 비디오를 보며 카메라 2대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미국인 카메라맨에게 Camera 1“Take two Korean commentators”……. Camera 2“Catch Korean spectators”…….” 그리고 비디오 스위처에게는 “Take Camera 1,”. “Camera 2”를 번갈아 외치고 있었다. 미 CBS가 주는 원본 영상에 우리 것을 입히는 작업이었다.

김득구는 초반에 맹렬한 투지로 맨시니를 몰아붙였으나 챔피언 맨시니도 만만치 않았다. 후반 들어 김득구는 힘을 잃어 가는 듯했고 맨시니의 강펀치를 자주 허용했다. 13라운드와 14라운드의 결정타는 투지의 김득구를 KO패로 몰았다. 성냥갑으로 모형관곽을 만들어 가져가며 “챔피언 아니면 죽음”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일관된 목표로 물러서지 않던 불굴의 철인 김득구는 그



왼쪽 이철원, 오른쪽 첫 번째 임웅길, 필자, 장 경

렇게 주저앉았다. 나는 중계차 안에서 김득구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며, 과거에 들것에 누워 나가는 많은 선수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들처럼 김득구도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 경기가 끝난 후에도 나는 몇 시간 후 VTR 생방송을 위해 매우 바빴다. VTR 녹화 상태도 확인해야 했고, VTR 플레이 포인트도 맞춰놔야 했고 송출할 위성 화선도 확인해야 했다. 서울 본사와 연락선으로 방송 큐쉬트도 확인해야 했다. 한국시각 14일 오전 10시 20분(현지시각 13일 토요일 저녁6시 20분)에 예정대로 중계차에서 라이브 방송을 위한 녹화테이프 Playback을 진행하는 도중이었다.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와서 ‘김득구가 뇌수술을 받았는데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에도 연락 화선으로 알렸다. 일요일 오전 라이브 방송 후 서울에서는 신문과 시청자들이 김득구가 이미 뇌사로 병원에 있는 상태임에도 방송에서 언급이 없었다고 비난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경기는 라스베이거스에서 VTR 제작된 것이어서 중간에 끊고 알리기가 어려웠다. 물론 중간에 자막처리는 가능했겠지만 그러면 게임의 긴장도는 떨어지고 프로그램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서울 진행팀도 주저했을 것이다.

방송 다음 날, 일정대로 장 경 선배는 후속 취재를 위해 현지에 남았고 나와 일행들은 귀국을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LA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본사에서 다시 라스베이거스에 돌아가 취재진과 합류하라고 지시했다. 라스베이거스로 돌아오니 형진한 위싱턴 지사장과 박채규 카메라 기자가 장 경 선배와 함께 취재에 열중하고 있었다. 김득구가 입원해 있던 데저트 스프링스 주립병원 주치의는 매일 김득구의 상태를 브리핑했다. 뇌사 상태인 김득구의 소식은 미국 주

요 신문, 방송에 연일 대서특필 됐고 왜유를 비는 어린이들의 작은 손글씨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큼직한 글씨까지 편지가 쇄도했고 많은 성금도 답지했다. 17일 오전에는 김득구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김득구의 침상 앞에서 “득구야, 엄마 왔다. 눈 좀 떠봐라.”라고 외쳤지만 득구는 대답이 없었다. 처음에 김득구의 어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찬 상태에서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한의사들은 살릴 수도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주치의와 양정규 한국권투위원회 회장, LA 총영사 등이 설득한 끝에 다음날 어머니는 인공호흡기 제거에 동의했다. 장기를 기증하고 눈을 감은 그의 나이 불과 26세. 마지막으로 인공호흡기 줄을 뺄 때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득구의 영결식은 라스베이거스 교민들에 의해 팜 공원묘지 영결식장에서 거행됐고 김득구의 관은 어머니, 이복형, 김현치 등에 의해 운구돼 라스베이거스를 떠나 당일 밤늦게 LA 공항을 이륙해 서울로 향했다.

김득구가 떠난지 어언 40년. 지금도 많은 매체들이 그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시 조명하고 있다. 불꽃같이 살다간 그의 삶이 한 편의 영화 같기 때문일 거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미국 NBC의 제작진이 취재 협조를 부탁하려고 나를 찾아 왔다. 김득구 미망인과 인터뷰 등을 희망했지만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김득구의 강원 고성 묘지를 찾았고 특집을 제작해 방송하고, 필러(Filler)를 만들어 88올림픽 기간 중 수시로 방송했다. 세월의 강은 끊임없이 흐른다. 당시 임신 3개월이었던 그의 약혼녀는 이후 아들을 낳았고 ‘아이가 자라면 권투를 시키겠다’던 김득구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지금 치과의사로 살고 있다. 중계현장을 함께 했던 이철원, 박채규, 장 경 세 분도 이미 작고했고 파킨슨병을 앓던 김현치도 별세했다는 소문이다. 어제와 오늘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끼고 살았는데 오늘 이 글을 쓰며 문득 소스라치게 깨달았다. 사람은 모두 죽고 노병은 더욱 빨리 죽는다.

‘MBC창작동요제’를 그리워하며



정수열
(편제, 극동대학교 이사)

5월 초, 손자의 하교를 도와주려고 초등학교에 갔을 때, 교실 밖에까지 아이들의 노래가 들렸다.

‘남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같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젊은 댄스 가수의 노래와 트로트가 TV 채널마다 넘쳐나고 ‘트롯 신동’이다 뭐다 해서 초등학교 학생까지 무대에 올리는 요즘 세태에서 아이들의 합창으로 듣는 ‘어머니의 마음’은 뜻밖에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와 한동안 발길을 멈추고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동요는 ‘아이들만의 노래’가 아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이 각박하고 험난한 세상을 사는 동안 굳어지고 무뎠던 감성을 문득 들리는 동요 한 소절이 눈 녹듯 녹이는 것이 바로 ‘동요의 매력’이다. 그러기 때문에 동요는 세대와 세대를 이으며 끝없이 사랑 받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5월이면 ‘MBC창작동요제’가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방송됐다. 1983년에 시작해서 2010년 제28회로 막을 내렸다. 제1회와 제2회는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제3회 이후 제18회까지는 호암아트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며 행사의 담당은 라디오국 제작2부였고 나는 1990년대에 제작2부 PD와 제작부장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다. 제1회 ‘새싹들이다’를 시작으로 ‘노을’, ‘종이접기’, ‘연날리기’, ‘즐거운 소풍길’, ‘하늘나라 동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아기 염소’ 등 지금도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동요 450여 곡이 배

이 노래들이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경위는 이렇다. 평소에 ‘창작동요제’에서 수상한 노래들이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곡들이 왜 교과서에서는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1990년 어느 날 우연히 초, 중등 음악 교과서 개편 작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자세히 알아보니 서울교육대학교 某 교수가 개편 작업 총괄이라고 했다. 당시 라디오국 제작2부장이었던 나는 그때까지 창작동요제 본선에 오른 악보를 한 아름 챙겨 들고 무작정 서울교육대학교로 가서 담당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노래들이 교과서에 실린다는 것은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안되면 말고’라는 심정으로 갔던 것인데 반응이 뜻밖이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며 악보들을 선선히 받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악보들은 교과 과정과 난이도에 맞춰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까지 실리게 됐던 것이다. 그 교수님으로선 소재를 제공해준 MBC가 고마웠겠지만 나는 그 교수님의 배려가 너무 고마웠다.



‘창작동요제’ 본선에 오른 12곡 내지 14곡은 행사가 끝나면 모두 음반에 수록되어 출간됐다. 그만큼 완성도가 있는 수

준 높은 노래들이었다. 그렇지만 콘테스트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시상에 등급을 매기지 않을 수 없는 일. 최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교육부장관상 등 가급적 많은 노래들에게 상을 주려고 배려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입상에서 탈락하는 곡은 있게 마련이어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래서 제2회 창작동요제를 마치고 나서 열 분 심사위원 중 한 분인 경희대 음대 엄정행 교수가 이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일단 예선을 통과한 곡은 본선에서 다시 우열을 가릴 것이 아니라 모두 입상곡으로 확정하고 그냥 발표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만큼 모두가 실하고 사랑스러운 노래들이다.’

어쨌거나 ‘창작동요제’의 하이라이트는 시상식이다. 1998년 제16회 ‘창작동요제’가 있던 날, 민용기 당시 편성이사(사)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시상하고 수상자가 다시 한번 수상곡을 부르는 등 대회는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대 뒤가 어수선했다. 입상에서 탈락한 어린이들이 무대 뒤에서 동시에 울음을 터뜨리며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인솔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달래느라 찢찢매고 있었다. 그 우

는 아이들 중에 내 조카도 끼어 있었다. 전라북도 정읍에서 올라와 ‘동화 속 꿈나라’를 부른 조카 최혜주 어린이는 지금은 가정주부로, 그때 받은 본선 진출 트로피를 아직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당시 내가 행사를 주관한 사실상 책임자였기에 조카가 출전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입상에서 탈락한 조카를 보면서 가슴만 태웠던 사실에 대해서는 그때도 지금도 조카는 물론 아내조차 알지 못한다.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고 나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할 어린이들에게 굳이 최우수상, 금상, 은상...을 나눠 상처를 주어야 했을까?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일이다.

‘날아라 새들이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이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초등학교 때 목청껏 소리내어 불렀던 여러 동요 중의 하나다. 하긴 그때는 달리 부를 노래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떤 동요를 부르는지 모른다. 어쩌면 아예 동요 자체를 부르지도 않는지도 모른다. 동요가 어린이들에게서 떠나간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들이 동요에서 멀어진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안타까운 마음이다.

병아리 입 모양의 로고가 인상적인 ‘MBC창작동요제’는 ‘MBC가 가장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 제작했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랬던 창작동요제가 해를 거듭하면서 규모도 화려해지고 경쟁도 눈에 띄게 치열해져서 인기 작곡가 선생님 그룹이 생겨나고 대도시 노래 교실 참가자가 많아지는 등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동요를 발굴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생긴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28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던 ‘MBC창작동요제’. 몇몇 TV채널에서 경쟁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트롯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른 흥내를 내며 트롯을 부르는 아이들을 보면서 부질없이 ‘창작동요제’를 떠올린다.

동요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용기를 심어 주고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적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창작 동요를 발굴 보급하는데 신경을 쏟는 것도 MBC의 역할과 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창작 동요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형태로든지 창작 동요는 이어져야 하고 그 역할을 MBC가 맡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기도 했으니 ‘MBC창작동요제’가 동요 보급과 발전에 끼친 공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특별기고

슬기로운 노년 생활

- 노인의 미덕은 '조심'이다 -



신재용(한의사)

•흔들리며 피는 꽃

“노인은 현명하게 되지 않는 거죠. 다만 조심스럽게 될 뿐이죠.”

헤밍웨이작 「무기여 잘 있거라」에서 아흔네 살 백작이 들려주는 말이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조바심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꺼려 나서지 못하거나 몸을 사리게 된다는 뜻일까? 아니다. 노인의 조심은 그런 뜻이 아니다. 조심操心의 ‘조’는 ‘붙든다’는 뜻의 수와 ‘나무 위에서 새 떼가 시끄럽게 운다’는 뜻의 소가 합쳐져 이루어진 글자다. 그러니까 세속의 시끄러움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바짝 붙들고 가다듬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都鍾煥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처럼 흔들리지 않고 이 풍진 세상을 어찌 살아가겠는가. 그러나 시에서처럼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우리 삶 역시 흔들리면서도 마음을 바짝 죄어 가다듬으며 줄기를 곧게 세워 꽃을 피워내지 않던가.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꽃을 피워내야 한다.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심操心’의 경지다.

•물레 피는 꽃

崔玟順 신부님은 시 「두메꽃」에서 ‘값없는 꽃으로 살고 싶어라/햇님만 내 남만 보신다면야’라고 했다. 외지고 높은 산 골짜구니에서 값없이 물레 피고 물레 지더라도 ‘햇님만 내 남만 보신다면야’ 그것으로 행복하다 싶다고 하였다. 세상에 값진 존재로 드러나고 싶고 세인이 다 우러러봤으면 하는 욕심이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러

보니 세속에 흔들리며 고요함을 잃게 된다. 고요함을 잃으면 밖으로부터의 자극에 의한 자취가 마음에 남게 되어 마음이 흔들리고 형체가 바로 자리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먼지가 일고 파문이 일어난다.

그러기에 『동의보감』은 “눈은 몸의 거울이요 귀는 몸의 지계문이다. 보는 것이 많으면 거울이 어둡고, 듣는 것이 많으면 지계문이 닫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보는 데 욕심을 극복하고 듣는 데 욕심을 극복하며, 보아도 마음으로 보고 들어도 마음으로 들으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듣는다’는 글자를 생각해 보자. ‘듣는다’는 한자 중 문은 귀로 듣는 것이요, 청聽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 들으면 어떤 말이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 이쯤 되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그릇됨이 없게 된다. 이를 일러 이순耳順을 거쳐 중심從心の 경지에 이르렀다고 한다. 몰래 피면서도 몽땅 드러냄, 바로 ‘조심操心’의 극치다.

•소박한 꽃

‘박꽃이 핀다/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 申大澈의 시 「박꽃」이다.

박꽃은 ‘별때 같은 사람이 잠들고’ 고요한 밤, ‘뜬소문도 잠들고’ 잠잠한 밤에 피는 꽃이다. 그러기에 별때 같은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다. 뜬소문을 초연한 꽃이다. 밤이 새도록 순백의 자태를 잃지 않는 소박한 꽃, 달빛 머금으며 별빛을 품으며 우주를 아우르는 포용의 꽃, 그래서 시인은 박꽃이 피면 ‘물소리가 물소리로 들린다’라고 하였다. 물소리가 비로소 물소리로 들리는 것, 이것이 이순이며 종심이다. ‘조심’의 미덕이 극치를 이룬 경지다. 조심의 미덕은 마음을 내려놓음이요 소박함이다.

『동의보감』은 소박한 삶에 대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허욕을

없애면.....모든 것이 그 욕망에 따라 다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음식이라도 달게 먹고, 의복도 아무 것이나 입으며, 풍속을 즐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는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소박素朴하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소박해지면 기욕이 눈을 괴롭힐 수 없고, 음탕한 기운이 마음을 유혹할 수 없으며, 사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자연히 “마음이 태평하고 성질이 화평하여 세간만사가 모두 공허하고 종일토록 이룩하는 것이 모두가 다 망상이요, 나의 몸 역시 헛된 환영이요, 화와 복 모두가 무유無有에 돌아가고, 생사가 모두 꿈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물소리에서 물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조심操心’의 득도다.

•향이 있는 꽃

“날 세워 창살을 끼는 서슬 푸른 냇이 있다/한 목숨 지켜낼 일이 갈수록 막막하건만/향만은 맡길 데 없어 이 삼동을 떨고 있다”

金相沃의 시조 한란寒蘭이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한 목숨 지켜낼 일이 막막한 역경 속에서도 한란의 고결한 냇은 향을 뿜어낸다. 삼동에 떨면서도 향을 품고 향을 뿜는다. 북풍한설에도 향을 팔지 않는 매화처럼 한란의 냇은 서슬 푸르다.

『동의보감』에는 사람이 지키기 어려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명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요, 둘째는 회로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요, 셋째는 성색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요, 넷째는 맛난 음식을 끊지 못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정신이 허약하고 정기를 흠어지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다섯 가지를 마음속에 품지 않는다면 “신실함과 유순함이 날로 증진되고 도덕이 온전해져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복이 오고, 오래 살 것을 바라지 않아도 자연히 오

래 살게 된다.”라고 하였다.

나이 들수록 이 다섯 가지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돈과 색을 밝히고 결핍하면 분노를 터뜨리고 남을 가르치려 하는 것만큼 추한 것이 없다. 가멸차다고 교만해져도 꼴보기 안 좋고 육신이 쇠락해졌다고 남에게 의탁하려거나 궁색하다고 궁상을 떨며 처량하게 보이면 청승맞아 안 좋다. 나이 들수록 서슬 푸른 냇을 지녀야 한다. 향을 품고 향을 뿜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조심操心’으로써 지조를 지켜나가는 길이다.

•죽지 않는 꽃

具常의 「임종 예습」은 흰 흙이 불에 덮여 구급차에 실려 간 때의 심정을 밝힌 시다.

“돌이켜보아야 착오 투성이 한 평생/ 영원한 동산에다 꽃 피울 사랑 커녕/ 땀과 눈물의 새싹도 못 지냈다/ 이제 허둥댔자 부질없는 노릇이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심정은 다 이러하리라. 후회했댔자 허둥댔자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으리라. 그래서 살아생전 원칙을 지키라 한다. 신념을 지키라 한다. 의지와 기개를 잃지 말라 한다. 나이 들어 죽음을 앞둔수록 하루하루를 임종 예습을 하듯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한다.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사람은 죽을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 육신의 한시적 생명은 끝나지만 영혼의 의지와 투지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지만 상어떼에 뜰어 먹히고 뼈만 매달고 지쳐 돌아온 노인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며 이 소설은 끝맺는다.

“길 저 위 노인이 사는 오두막집에서는 노인이 다시 잠을 자고 있었다....노인은 사자의 꿈을 꾸고 있었다.”

이 꿈은 영원한 동산에다 피울 꽃이다. 죽지 않는 꽃이다. ‘조심操心’의 결말이다.